



간호학생과 학부모의 부모부양행동과 관련요인

배영숙¹⁾ · 이숙희¹⁾ · 김정선¹⁾ · 김미희²⁾ · 선광순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 평균 수명은 79.2세로 2000년에 비해 3.2년이 늘어났다. 200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어 9.9%로 나타났으며, 노인부양비는 13.8%로 10년 전에 비해 4.9%가 증가 하였다(통계청, 2007).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출산율은 최저로서(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노인을 부양할 인구는 줄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변화하여 경로효친사상이 감퇴되고,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될 뿐 아니라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송근자, 2004; 오세룡, 2002; 최승원, 정혜정, 서병숙, 1997). 입시 위주의 교과교육으로 효 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으며(백석원, 2004),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 사회 속에서 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부양기능의 쇠퇴가 노인 부양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오세룡, 2002).

대학생들은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측면에는 적극적인 부양의식 태도를 보이지만 노인의 불합리한 요구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황정순, 2004), 부모부양의 책임의식이 장남 중심에서 능력 있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 황정순, 2004). 옥은진(1990)의 노인부양의식 연구에서도 ‘부양해야한다’ 보다는 ‘독립해서 살아야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부양의식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부양의식이 보고되고 있는데(김윤정 등, 2005),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자녀의 세대간에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부모세대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고 청소년 세대는 우애주의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나(김윤정 등, 2005),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는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는 반면 신세대 또는 청소년세대는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박임옥, 2000; 조성남, 윤옥경, 2000).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태도의 급격한 변화가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 부양행동에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는 효의식(이보현, 2006)과 부양의식(김송애, 조병은, 1991; 이보현, 2006; 이신숙, 서병숙, 1994)이 보고되고 있으며, 기타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 소득수준,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 출생순위, 부모의 건강상태 등(서소영, 1998; 손서희, 2004)이 제시되고 있다.

오세룡(2002)에 의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화에 따라 관습화되고 행위화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최근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인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 간호계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이

주요어 : 부양행동, 효의식, 부양의식

1) 기독교간호대학 교수

2) 기독교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pamhee@hanmail.net)

3) 기독교간호대학 조교수

투고일: 2008년 2월 15일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08년 5월 24일

부모에 대한 효의식, 부양의식을 갖고,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간호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간호를 더 잘하도록 하기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에 노부모를 부양할 간호학생들의 부모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노인부양 및 간호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과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 및 간호학생의 부모부양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과 학부모의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 간호학생과 학부모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학생과 학부모 각각의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학생의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과 학부모의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용어 정의

● 효 의식

효란 자기를 낳고 기르고 돌보고 일깨워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버이를 정성껏 섬기는 것(백석원, 2004)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백석원(2004)이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생육의 효(生育의 孝), 공경(恭敬)의 효, 양지(養志)의 효, 순종(順從)의 효, 입신양명(立身揚名)의 효, 간언(諫言)의 효, 신체보호(身體保護)의 효, 봉양(奉養)의 효, 시봉(侍奉)의 효, 후사(後嗣)의 효, 행사제례(行喪祭禮)의 효 모두 11가지 영역의 효에 관한 생각을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부양의식

개인이 부양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서 그 내면에는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보현, 2006)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보현(2006)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부모님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도움에 대한 생각을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 부모부양행동

부양의식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보현, 2006)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보현(2006)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할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모부양행동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1개 간호대학(3년제) 1, 2, 3학년 401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한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자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현지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 중에서 학부모용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경우에 서면화 된 연구목적 및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2주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였다. 실습주기가 다른 관계로 자료수집은 2007년 5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설문지를 짝짓기하여 수집하였으며, 회수율은 79.8%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학생과 학부모 320쌍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

● 효의식 측정도구

효의식 측정도구는 백석원(2004)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생육의 효, 공경의 효, 양지의 효, 순종의 효, 입신양명의 효, 간언의 효, 신체보호의 효, 봉양의 효, 시봉의 효, 후사의 효, 행사제례의 효를 11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별 문항 수는 2개로 총 22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반드시 그렇다 5점, 그런 것 같다 4점, 모르겠다 3점, 아닌 것 같다 2점, 반드시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효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백석원(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값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학생 .816, 부모 .890이었다.

● 부양의식 측정도구

부양의식 측정도구는 이보현(2006)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6문항, 정서적 6문항, 경제적 6문항, 총 18문항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보현(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값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하부영역 각각의 Cronbach's α 값은 신체적 부양의식 .774, 정서적 부양의식 .807, 경제적 부양의식 .78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학생의 신체적 부양의식 .832, 정서적 부양의식 .778, 경제적 부양의식 .823이었으며, 부모의 신체적 부양의식 .858, 정서적 부양의식 .842, 경제적 부양의식 .865로 나타났으며 부양의식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학생 .919, 부모 .940이었다.

● 부모부양행동 측정도구

부모부양행동 측정도구는 이보현(2006)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부양행동 4문항, 정서적 부양행동 4문항, 경제적 부양행동 4문항 총 12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부양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보현(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값이 제시되지는 않았고, 하부영역 각각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청소년의 신체적 부양행동 .75, 정서적 부양행동 .82, 경제적 부양행동 .92이었으며, 부모의 신체적 부양행동 .70, 정서적 부양행동 .78, 경제적 부양행동 .76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학생의 신체적 부양행동 .777, 정서적 부양행동 .779, 경제적 부양행동 .651이었으며, 부모의 신체적 부양행동 .792, 정서적 부양행동 .866, 경제적 부양행동 .888이었고,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학생 .843, 부모 .933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

였다.

- 학생과 학부모의 효의식, 부양의식 및 부모부양행동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학생과 학부모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행동 정도를 t-test, ANOVA로 확인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을 이용하였다.
- 학생과 학부모의 효의식, 부양의식 및 부모부양행동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여학생이 89.7%, 남학생이 10.3%이었고, 평균 연령은 21.17세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81.6%이었다. 출생순위는 장남이나 장녀인 경우가 46.8%이었고, 부모님 교육 수준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83.1%이었으며, 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300만원 이하가 70.3%, 부모님 생존율은 90.3%,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과 동거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54.1%가 동거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학생의 85.6%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어머니의 건강상태에서는 81.5%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중 여성이 74.7%이었고, 평균 연령은 48.89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67.8%이었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장남이나 장녀인 경우가 36.2%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82.2%,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68.7% 비율을 차지했다. 부모님 생존여부 문항에서 22.2%만 부모가 살아계신다고 응답하였고, 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58.4%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가 남자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tudents N(%)	Parents N(%)
Gender	Female	287(89.7)	239(74.7)
	Male	33(10.3)	81(25.3)
Marriage	Unmarried (single)	312(97.5)	2(0.6)
	Married	8(2.5)	318(99.4)
Age	Less than 19	183(57.2)	
	20~25	107(33.4)	
	More than 26	30(9.4)	
	Less than 49		230(71.9)
	50~60		76(23.8)
	More than 61		14(4.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3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tudents N(%)		Parents N(%)	
		Father (n=299)	Mother (n=308)	Male (n=80)	Female (n=238)
Religion	Yes	261(81.6)		217(67.8)	
	No	59(18.4)		103(32.2)	
Birth order*	The eldest son or the eldest daughter	148(46.8)		112(36.2)	
	The others	168(53.2)		198(63.8)	
Parent education*	Under elementary	15(4.8)		18(5.6)	
	Middle school	38(12.1)		39(12.2)	
	High school	164(52.4)		185(57.8)	
	More than college	96(30.7)		78(24.4)	
Income(won)*	3,000,000 and under	210(70.3)		215(68.7)	
	3,010,000 and over	89(29.7)		98(31.3)	
Parents existence	Both alive	289(90.3)		71(22.2)	
	Etc.	31(9.7)		249(77.8)	
Experience living with grandparents	Yes	173(54.1)		187(58.4)	
	No	147(45.9)		133(41.6)	
Experience living with parents	Yes			187(58.4)	
	No			133(41.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tudents N(%)		Parents N(%)	
		Father (n=299)	Mother (n=308)	Male (n=80)	Female (n=238)
Health of parents	Bad	43(14.4)	57(18.5)		
	Moderate	143(47.8)	144(46.8)		
	Good	113(37.8)	107(34.7)		
Self condition	Bad			14(17.5)	44(18.5)
	Moderate			42(52.5)	115(48.3)
	Good			24(30.0)	79(33.2)

* No answering excluded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students and parents about filial piety awareness,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and supporting behavior for their parents

Variables	Subscales	Student(N=320) M±SD	Parents(N=320) M±SD	t	p
Filial piety awareness		82.89±7.89	87.94±10.10	-6.970	.000
	Rearing	8.45±1.15	8.62± 1.18	-1.821	.069
	Respect	8.95±1.03	8.82± 1.14	1.559	.120
	Assistance	8.41±1.08	8.44± 1.22	-.392	.695
	Obedience	6.93±1.44	7.78± 1.45	-7.504	.000
	Success	6.66±1.24	7.23± 1.46	-5.273	.000
	Advice	7.02±1.20	7.53± 1.31	-5.089	.000
	Protection	7.27±1.28	7.82± 1.40	-5.183	.000
	Supporting	8.08±1.17	8.32± 1.20	-2.585	.010
	Serving	8.41±1.14	8.47± 1.17	-.687	.493
	Heir	4.84±1.74	6.72± 2.05	-12.524	.000
	Funeral and religious service	7.67±1.45	8.05± 1.50	-3.237	.001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74.60±7.95	74.01± 9.17	.864	.388
	Physical	25.14±2.92	25.09± 3.08	.236	.831
	Emotional	23.86±3.03	24.09± 3.56	-.860	.390
	Financial	25.59±2.80	24.77± 3.25	3.384	.001
Supporting behavior		47.81±8.19	48.72± 7.15	-1.491	.136
	Physical	15.93±2.68	16.37± 2.50	-2.161	.031
	Emotional	16.03±2.39	15.70± 2.73	1.597	.111
	Financial	15.83±4.38	16.63± 2.58	-2.823	.005

경우 보통이상이 82.5%이었으며, 여자인 경우 81.5%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학생과 학부모간 효의식, 부양의식과 부모부양행동에 대한 차이

학생과 학부모간의 효의식, 부양의식과 부모부양행동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효의식은 학부모가 학생보다 높았다($t=-6.970, p<.001$). 하부항목 중 순종의 효($t=-7.504, p<.001$), 입신양명의 효($t=-5.273, p<.001$), 간언의 효($t=-5.089, p<.001$), 신체보호의 효($t=-5.183, p<.001$), 봉양의 효($t=-5.183, p=.010$), 후사의 효($t=-12.524, p<.001$), 행상제례의 효($t=-3.237, p=.001$)에서 학생보다 학부모의 평균이 더 높았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서 하부항목 중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공경의 효이며 가장 낮은 항목은 후사의 효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간 부양의식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t=.864, p=.388$), 하부항목 중 경제적 부양의식은 학생의 평균이 학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3.384, p=.001$). 또한 부모부양행동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t=-1.491, p=.136$), 두 군간 하부항목의 차이를 보면 신체적 부양행동($t=-2.161, p=.031$)과 경제적 부양행동($t=-2.823, p=.005$)에서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행동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행동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종교,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생존여부, 조부모나 외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에 따라 부모부양행동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가족의 평균 월수입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이 30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부모부양행동이 더 높았다($t=-2.224, p=.027$).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건강상태도 부모부양행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Scheffe 방법으로 다중 비교한 결과, 아버지 건강상태($F=4.701, p=.010$)와 어머니 건강상태($F=5.184, p=.006$)가 ‘좋은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집단이 ‘보통이다’와 ‘나쁜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집단보다 부모부양행동 점수가 더 높았다<Table 3>.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행동에서는 성별, 연령, 종교, 출생순위, 가족의 평균 월수입,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 자신의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없었다<Table 4>.

효의식, 부양의식 및 부모부양행동 간의 상관관계

학생의 효의식, 부양의식 및 부모부양행동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한 결과 효의식과 부양의

<Table 3> Supporting behavior by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3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47.84±8.32	-.168	.866
	Male	47.58±7.03		
Age	Less than 19	47.51±8.25	.288	.750
	20~25	48.22±8.43		
	More than 26	48.20±7.09		
Religion	Yes	47.77±8.29	-.199	.843
	No	48.01±7.78		
Birth order	The eldest son or the eldest daughter	47.24±8.25	-1.139	.256
	The others	48.29±8.13		
Parent education	Under elementary	48.60±5.84	1.296	.276
	Middle school	45.56±8.51		
	High school	48.38±8.10		
	More than college	47.44±8.54		
Income(won)	3,000,000 and under	47.07±8.47	-2.224	.027
	3,010,000 and over	49.22±7.45		
Parents existence	Both alive	47.88±8.22	.456	.649
	Etc.	47.16±7.97		
Experience living with grandparents	Yes	47.60±7.79	-.481	.631
	No	48.05±8.65		
Health of father	Bad①	46.41±7.44	4.701	.010 (①,②<③)
	Moderate②	46.80±7.87		
	Good③	49.69±8.64		
Health of mother	Bad①	46.32±8.03	5.184	.006 (①,②<③)
	Moderate②	47.06±7.92		
	Good③	49.97±8.39		

<Table 4> Supporting behavior by characteristics of parents

(N=32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49.13±6.28	-1.782	.076
	Male	47.49±9.25		
Age	Less than 49	48.47±6.94	.788	.456
	50~60	49.13±7.97		
	More than 61	50.76±5.87		
Religion	Yes	48.88±6.59	.579	.563
	No	48.38±8.27		
Birth order	The eldest son or the eldest daughter	48.50±6.35	-1.172	.864
	The others	48.65±7.64		
Education	Under elementary	48.94±8.43	.717	.542
	Middle school	47.47±8.80		
	High school	49.16±6.56		
	More than college	48.28±7.40		
Income(won)	3,000,000 and under	48.39±7.53	-1.176	.240
	3,010,000 and over	49.40±6.31		
Parents existence	Both alive	47.80±7.07	-1.235	.218
	Etc.	48.99±7.17		
Experience living with parents	Yes	49.09±7.14	1.074	.283
	No	48.21±7.17		
Self condition	Bad	48.56±7.28	1.392	.250
	Moderate	48.16±7.56		
	Good	49.65±6.40		

식($r=.611$, $p<.001$)은 높은 순상관 관계를 보였고, 효의식과 부모부양행동($r=.377$, $p<.001$), 부양의식과 부모부양행동($r=.479$, $p<.001$)이 비교적 높은 순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학부모의 효의식과 부양의식($r=.731$, $p<.001$), 효의식과 부모부양행동($r=.516$, $p<.001$), 부양의식과 부모부양행동($r=.664$, $p<.001$)이 모두 높은 순상관성을 보였다.

학생과 학부모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생의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과 학부모의 효의식, 부양의식, 부모부양행동 간에 모두 서로 유의하게 순 상관성을 보였다. 즉 학부모의 효의식이 높으면 학생의 효의식도 높고, 학부모의 부양의식이 높으면 학생의 부양의식도 높으며, 학부모의 부모부양행동이 높으면 학생의 부모부양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된 변인들 중 유의한 차이 또는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결과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생의 부양의식으로 전체의 2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부모부양행동이 5.0%, 학생의 효의식이 1.4%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8.1%이었다<Table 6>.

<Table 5> The correlations among filial piety awareness,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and supporting behavior of students and parents (N=320)

		①	②	③	④	⑤	⑥
Students	① Filial piety awareness	1.000					
	②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611 (.000)	1.000				
	③ Supporting behavior	.377 (.000)	.479 (.000)	1.000			
Parents	④ Filial piety awareness	.375 (.000)	.323 (.000)	.177 (.001)	1.000		
	⑤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297 (.000)	.388 (.000)	.232 (.000)	.731 (.000)	1.000	
	⑥ Supporting behavior	.215 (.000)	.260 (.000)	.329 (.000)	.516 (.000)	.664 (.000)	1.000

〈Table 6〉 Influential factors on supporting behavior of students

(N=320)

Variables	R	R ²	Beta	t	p
Awareness of supporting parents of students	.466	.217	.314	4.580	.000
Supporting behavior of parents	.517	.267	.256	4.126	.000
Filial piety awareness of students	.530	.281	.150	2.252	.025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607-.910의 값을 보였고, 분산 팽창요인은 1.099-1.646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더빈-왓슨 값 1.929를 보여 변수간의 독립성도 성립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효의식은 학부모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택수(2001) 연구에서도 학부모가 학생보다 전체적인 효의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학생과 학부모 모두에서 하부항목 중 공경의 효가 가장 높고 후사의 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경의 효의 경우는 간호학생의 인식이 학부모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택수(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남녀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백석원(2004)의 연구에서도 공경의 효가 높았으나 후사의 효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공경의 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본 대상자들인 간호학생이 가진 간호소명과 돌봄의식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공경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후사의 효가 낮게 나타난 것은 후사의 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대의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과 학부모간 부양의식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부항목 중 경제적 부양의식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학생이 부모보다 더 높았다. 황정순(2004)의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들의 전체 노인부양의식이 매우 높았으나 하부항목에서는 신체적 부양의식이 높고 경제적 부양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양의식이 높지 않음에 생각되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도 여겨진다.

학생과 학부모간의 부모부양행동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부항목으로 두 군간 차이를 보면 신체적 부양행동과 경제적 부양행동에서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가 자신의 부모를 실제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부양행동과 경제적 부양

행동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부양행동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종교,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생존여부, 조부모나 외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유무에 따라서 부모부양행동의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평균 월수입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모부양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평균 월수입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부양행동을 잘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생의 부모부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건강악화는 자녀들에 대한 의존감과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부모부양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라 여겨진다(오세룡, 2002). 따라서 부모의 건강은 자녀들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이 좋을수록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부모부양행동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학생의 효의식, 부양의식 및 부모부양행동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높으면 부모부양행동이 높다는 이보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도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높을수록 부모부양행동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양행동에 대한 효의식 및 기타 일반적 특성 요인 이상으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이 부양의식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생들의 부양의식으로 전체의 2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모부양행동이 5.0%, 학생들의 효의식이 1.4%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8.1%이었다. 간호학생과 그 학부모에서도 부양의식이 부모부양행동에 관련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른 대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송애, 조병은, 1991; 서소영, 1998; 이보현, 2006; 이신숙, 서병숙, 1994)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양의식과 효의식이 높은 경우 부모부양행동도 높기 때문에 미래의 노인의 부양자이면서 노인 간호에 주역이 되고 결국은 노인이 될 간호학생이 노인에 대한 효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대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노부모부양에

있어 가족부양기능이 약해져가고 있으며, 노인부양의 문제가 사회복지기관으로 위임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호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경로효친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간호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부모부양 뿐만 아니라 간호할 대상자의 부양과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G시에 소재한 3년제 간호대학 학생과 그 부모 320쌍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모부양행동 정도를 확인하고, 효의식, 부양의식 및 기타 일반적 특성과 부모부양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간호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대한 주요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효의식은 간호학생과 학부모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부모가 높았다. 한편 부양의식과 부모부양행동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간호학생의 부모부양행동은 가족의 평균 월수입과 부모의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부모의 부모부양행동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서 효의식, 부양의식 및 부모부양행동 간에는 높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 간호학생의 부모부양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높을 경우 부양행동도 높으므로 앞으로 효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과 인지적 측면의 요소가 부모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학생의 부양행동에 대해 주요 영향변수로 나타난 부양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 대중매체 등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노인의 인구비가 증가되고 있고 노부모 부양에 있어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 사회와 임상환경을 고려할 때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인대상자를 위한 간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호교육정책 즉 효의식과 노인공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과 실습경험 등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부모부양행동에 대해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타 변인

들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 결과를 확장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송애, 조병은 (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 부양의식의 세대차이와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243-261.
- 박임옥 (2000). *중학생과 부모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행동 차이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
- 백석원 (2004). *고등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주.
- 서소영 (1998). *신세대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손서희 (2004). *기혼자녀와 부모간의 친밀감에 따른 부양행동 및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송근자 (2004).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오세룡 (2002). *한국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옥은진 (1990).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보현 (2006). *청소년의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부모 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산.
- 이신숙, 서병숙 (1994).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29-139.
- 이택수 (2001). *학생과 학부모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
- 조성남, 윤옥경 (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집*, 5, 103-135.
- 최승원, 정혜정, 서병숙 (1997).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15, 83-99.
- 통계청 (2007). *생명표*.
- 황정순 (2004).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과 노후대비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OECD health data*.

Supporting Behavior of Parents and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Bae, Yeong Suk¹⁾ · Lee, Sook Hee¹⁾ · Kim, Jeong Sun¹⁾ · Kim, Mi Hee²⁾ · Sun, Kwang Soon³⁾

1)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2) Associate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3) Assistant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supporting behavior and various-correlations in nursing students and their parents. **Method:**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320 nursing students and parents from May to Aug. 2007. **Result:** The relationship among supporting behavior of parents, filial piety awareness, and awareness of parents' support was high. As the above variables were high for the parents, they were also high for nursing students. The awareness of parents' support parents' supporting behavior, and filial piety awareness of students explained the supporting behavior of 28.1% of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 awareness of parents' support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Conclusion:** It is essential to devise educational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to experience supporting behavior and to become aware of parents' support.

Key words : Behavior, Awareness, Parents, Social suppor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i Hee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67 Yangrim-dong, Nam-gu, Gwangju 503-711, Korea

Tel: 82-62-676-8159 Fax: 82-62-675-5806 E-mail: pamhee@hanmail.net